

궁중문학 연구(1)*

- 궁중문학 출현배경과 작품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

이 금 희**

차 례

- | | |
|---------------|----------------------------|
| 1. 서 론 | 3. 궁중문학 작품의 공통점-정통성 문제와 갈등 |
| 2. 궁중문학 출현 배경 | 4. 결 론 |

1. 서 론

지금까지 궁중문학에 관한 연구는 여러 선학들에 의해 고찰되어 왔다. <계축일기>, <인현왕후전>, <한중록>은 궁중의 비극을 다룬 작품으로 그 문학성이 인정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과의 관계에서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비교되었다. 특히 오늘날 전해지는 궁중문학 작품들은 역사적인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정사나 『대동야승』, 『연려실기술』과 같은 야사 등을 근거로 하여 궁중문학 작품들의 장르를 수필이나 소설, 실기문학 등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축일기>, <인현왕후전>, <한중록>은 궁중의 비사를 소재로 한 작품이면서도 각각 그 성격이 같지 않다. 각 작품에 따라서 작가가 의도하는

* 이 논문은 1999학년도 상지대학교 교내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한 논문임.

** 상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역사서가 작품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세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말하는 역사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이 결합하여 독특하게 산출된 문학작품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학들의 연구업적을 근거로 하여 궁중문학 작품의 출현 배경을 조선 전기 왕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부터 사적으로 고찰하여 왕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살피고, 궁중문학 작품들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의 이러한 의도는 궁중과 관련된 작품들이 시대와 작자에 따라서 어떠한 양상으로 산출되는지를 밝히고 궁중과 관련된 작품들의 갈등의 핵심요인이 무엇인지를 헤명하기 위해서이다. 본고에서의 이러한 고찰은 궁중문학 작품의 총체성을 거시적으로 새롭게 재조명하기 위해서이다.

2. 궁중문학 출현 배경

조선조 후기에 궁중문학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먼저 임진왜란 이후의 시대상황이 왕을 절대적인 존재에서 상대적인 존재로 보게 되는 의식의 변화요, 다음으로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국민들의 한글 사용이 생각보다 빠르고 깊숙하게 보급된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조 전기에는 시가문학이 산문문학보다 발달한 시기였다. 조선조 전기에 사대부들이 즐긴 시가에는 ‘왕’과 관련된 작품이 몇 편 있다. 이 시기에 왕과 관련된 작품들은 ‘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임금과 떨어져 자연에서 노닐면서도 작자의 마음속에서는 절대권자인 임금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맹사성(1360-1438)의 <강호사시가>와 송순(1493-1582)의 <면앙정가>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뉘이 절로 난다.....(중략).....이 몸이 閑暇하옵도
亦君愿이샷다¹⁾

<강호사시가>

江山風月 거느리고 내 百年을 다 누리면.....(중략).....이 꿈이 이렇금도
亦君恩이샀다

<면앙정가>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끝부분에 “亦君恩이샀다”로 마무리하여 임금이라는 존재가 두 사람에게 절대적임을 드러내고 있고, 임금이 卑俗化되거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칭송의 대상이다.

임진왜란 이후의 작품으로는 허전(혹은 선조)²⁾의 <고공가>와 이원익(1547-1634)의 <고공담주인가>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고공담주인가>는 앞선 시기의 작품들과는 달리 왕을 절대시하여 무작정 칭송하지는 않는다. 임진왜란이라는 대전란을 겪으면서 왕에 대한 비판의식이 작품에 배어 나온다. <고공가>와 <고공담주인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한어버이 살림살이 하려할 제/인심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중략)/논밭도 좋거니와 고공(雇工)도 근검터라/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 사자하니/엿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관데/화살을 전혀 없고 옷밥만 다루느냐/(중략)/은혜란 생각 아녀 제 일만 하려 하니/(중략)/너희 일 에달아하면서 새끼 한 사리 다 꼬래라.

<고공가>

크나 큰 기운 집에 마누라 혼자 앉아/기갈(飢渴)을 뉘 들으며 논의를 놀라 할꼬/(중략)/헐 없는 종의 일은 묻도 아니 하려니와/도로혀 헤여하니 마누라 탓이로다/내 항것 외다 하기 종의 죄 많건마는/그러타 뉘를 보려 민망하여 사죄나이다/(중략)/집 일을 고치거든 종들을 휘오시오/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오/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믿오소서 /진실로 이리 하시면 가도(家道) 절로 넓니이다.

<고공담주인가>

-
- 1) 본 논문에서의 인용문들은 편의상 필자가 현대어로 고쳤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고어를 그대로 사용함을 밝힌다.
 - 2) 李聖儀씨 소장 가사책 ‘잡가’에는 “此宣祖御製壬辰經亂之後作此歌以寓慷慨臣僚之意”라 하여 작자를 宣祖라 했고, 이수광의 『芝峰類說』에는 “俗傳雇工歌.....(중략).....然余聞非御製乃許塏所作而時俗誤傳云許塏以進士登武科者也”라 하여 작자가 宣祖가 아니라 許塏이라 했다. 이수광은 이원익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니, 『지봉유설』의 기록에 신빙성이 있다.

<고공가>는 주인(혹은 선조)이 고공(혹은 신하들)에게 사심을 버리고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훈계조의 노래이다. 고공들의 일하는 모습이 살림살이를 시작했을 때와 같지 않음을 들어 주인은 고공들에게 처음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공답주인가>에는 고공이 무조건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주인에게 밝히고 있다. 가도(家道)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생각이 모자라는 종이 잘못된 탓도 있겠으나 다시 생각하니 주인(왕)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이다. 종이 주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야말로 종의 죄가 많다고 하면서도 주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리를 조목조목 짚어간다. 곧 집안 일을 고치려면 종들을 휘어잡아야 하고, 종들을 휘어잡은 후에는 상벌을 밝히며 상벌을 밝힌 다음에는 어른 종을 믿어달라는 것이다. 주인이 진실로 이렇게 한다면, 가도(家道)는 저절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원익의 <고공답주인가>로 미루어 볼 때, 임진왜란을 겪은 후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왕을 무조건 찬양하거나 절대적인 존재(은혜를 베푸는 사람)로 인식하지 않고, 객관적인 인물로 대상화시켜 종이 주인의 시비를 가리는 데까지 나아간다.

임진왜란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17세기의 한문소설 <雲英傳>³⁾에는 안평대군의 옛집인 ‘壽聖宮’을 소재로 했다. 물론 이 ‘수성궁’은 왕이 정사를 보는 정궁(법궁)이 아니라 대군이 거처하는 집이기는 해도 소설에서 ‘宮’을 소재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운영전>은 몰락한 선비인 柳泳이 만력 신축년(선조 34년) 봄에 안평대군의 옛집인 수성궁을 구경하러 갔다가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운영과 김진사의 혼령을 만나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는다. 당시 ‘수성궁’에 거처했던 궁녀들은 안평대군의 엄명으로 어느 누구라도 외부의 남성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되었는데, 그곳의 궁녀였던 운

3) <운영전>의 작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창작연대는 17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작품의 내용에 “萬曆辛丑春三月既望”이라 되어 있는데, “萬曆辛丑年”은 명나라 神宗 29년인 宣祖 34년(1601)이기 때문이다. 또 국립도서관본에는 “유영전 즉 운영전(柳泳傳 卽 雲英傳)”이라는 제목 아래 “대명 천계 21년(大明天啓二十一年)”이라는 간기(1641년)가 필사되어 있어서, <운영전>의 창작시기를 1601년에서 1641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영은 김진사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사랑을 성취하지 못하고 운영은 마침내 ‘수성궁’의 별당에 갇힌 후 그곳에서 자결한다. 평소에 ‘심지어 어린 제비도 쌍쌍이 날고 새집에 깃든 새도 두 마리가 함께 잠들며 풀에는 습草(습초)가 있고 나무에도 連理枝(연리지)가 있다. 또 무지한 초목과 미천한 새들도 陰陽(음양)을 품수하여 즐거움을 나누지 않음이 없는데도,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적막한 深宮(심궁)에 갇히어 꽃피는 봄과 달 뜨는 가을에 등불만 베풀면서 혼을 사르고 청춘을 헛되이 버리면서 공연히 저승의 한탄 남기려고. 어찌 타고난 운명의 야박함이 이렇듯 심한가?’⁴⁾ 하며 깊은 궁에 갇혀 음양의 즐거움을 나누지 못함을 탄식하던 궁녀들이 운영이 자결하자 ‘궁중 사람들이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함으로써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한 ‘수성궁’의 주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임진왜란 이후의 시가작품이나 소설에서 궁(궁궐)의 주인들을 절대화시켜 칭송하거나 찬양하지 않고 객관화시켜 비판하는 것은 다음에 나오게 될 궁중문학 작품, 곧 <계축일기>, <인현왕후전>, <한중록>의 출현을 예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궁중문학 작품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계축일기>를 들 수 있다. <계축일기>⁵⁾는 그 책의 표제로 볼 때 광해군 5년(계축년)의 일만을 연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계축일기>의 첫머리는 선조 35년(萬曆 壬寅年)의 일로부터 시작된다. 선조 35년은 <운영전>의 유영이 ‘수성궁’을 구경하러 가서 운영과 김진사를 만난(선조 34년 萬曆 辛丑年) 다음 해이어서 흥미롭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선조 25년 임진왜란 이후의 시가 작품 <고공담주인가>에서 고공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주인에게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주인도 주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운영전>에서도 ‘수성궁’의 주인인 안평대군의 반인륜적인 폭압을 운영의 자결과 연관시켜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것을

4) 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276면.

5) <계축일기>의 다른 명칭으로는 <서궁록>, <서궁일기>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김신연의 ‘『서궁일기』 연구-작자 추정 중심으로-’, (속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5, 8)에 미루고,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계축일기>라고 명명한다.

불 때 궁궐(왕)이나 궁(왕족)에 대한 비판의식이 문학작품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을 겪고 난 다음의 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계축일기>는 <인현왕후전>이나 <한중록>과 달리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폐출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른 두 작품은 왕이 비극적인 일과 관련되었으면서도 왕위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왕을 필요 이상으로 비하하거나 왜곡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인해 폐출되었기 때문에 <계축일기>의 작자는 광해군의 인물됨이나 행위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왜곡시켜 그를 천하에 몹쓸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계축일기>의 작자는 광해군을 천하의 패륜아 중 패륜아요, 왕비가 곁에 없으면 정사를 혼자 처리하지 못해 찢절매는 어리석은 군주로 묘사하여, 실제 광해군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게 그를 卑俗化시켰다.

또한 작품 말미에 밝혀 놓았듯, <계축일기>는 당시 궁궐에서 생활했던 내인들이 기록했으니⁵⁾ 원한에 찬 내인들의 입장에서는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보았을 리 없었음은 자명하다. 그런고로 <계축일기>에 묘사된 광해군은 절대적이고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卑俗化되고 戲謔化된 인물이다. <계축일기>에서 내인들이 절대권자인 왕을 이처럼 비하한 것은 평소 억압된 궁궐생활에 대한 불만⁶⁾과 계축년 이후 광해군 축으로부터 당한 억울함과 분

6) 정병설은 <계축일기>의 결미에 '내인들이 잠깐 기록하노라'를 필자경위가 아닌 창작경위로 보고, 내인을 작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계축일기의 작가문제와 역사소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15집, (한국고전문학회, 1999, 6), 참조. 그러나 역사를 바탕으로 기술한 <계축일기>와 순수한 허구작품인 <완월회맹연>과는 그 출발부터 같지 않기 때문에 두 작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계축일기>의 서두와 <완월회맹연>의 서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계축일기>의 서두- 단력 임인년에 중전이 아끼 겨오시다 듣고 유가가 낙태(落胎)하실 일을 하노라 놀래오되 쉰내에 팔매질도 하고 액정 사람을 사귀어 내인 측간에 구멍 뚫고 나무로 쑤시며.....

*<완월회맹연>의 서두- 대명(大明) 영종(英宗) 연간에 황태부(皇太傅) 수각노(首閣老)에 진국공 정(程) 한에 자(字)는 계원이요 호(號)는 문청이니 송원(宋賢) 명도선생(明道先生) 후예(後裔)라.....

7) <운영전>에서도 궁녀들이 옛사람이 지은 宮怨詩를 읽고 논한 것을 보면, 억압된 궁궐생활에 대한 궁녀들의 고통과 불만이 특정한 시대만으로 한정되지 않음을

함이 폭발적으로 분출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인들이 이미 배출된 광해군을 최대한 卑俗한 인물로, 또 무능력하고 기묘한 인물로 비하함으로써 자신들의 인성이 절대권자인 왕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은연중 강조했다. 그리고 신성시되고 절대시되던 왕의 위상을 일상적 인물만도 못하다고 비하시키는 반면, 궁중에서 비천하게 살아가던 내인들 자신들의 위상은 한껏 높이려고도 하였다.

<인현왕후전>은 숙종 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숙종과 인현왕후, 장희빈에 얽힌 사건을 소재로 하여 쓴 글이다. <인현왕후전>은 <계축일기>와는 글의 성격이 같지 않다. <계축일기>의 작자가 광해군에게 피해를 당했던 인물대비의 내인들이라면, <인현왕후전>의 서술자는 사대부 출신의 남성이다.⁸⁾ <인현왕후전>의 서술자가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작품과 관련된 인물, 곧 숙종과 인현왕후, 장희빈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글의 서술자는 인현왕후와 장희빈이라는 인물을 통해 선과 악이라는 대립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지만, 절대권력자였던 왕의 모습을 신성한 존재로만 묘사하지 않은 것도 한 특성이자이다.

<인현왕후전>의 서술자는 숙종이 장희빈에게로 마음이 기울어 인현왕후를

알 수 있다.

8) <인현왕후전>의 작자에 대해서는

- 가) 궁인-이병기, 『국문학전서』, (신구, 1970), 167면.
내인-조윤계, 『한국문학사』, (담구당, 1981), 263면.
- 나) 박태보의 후예 혹은 인현왕후의 親庭—門 - “분명한 것은 당시 后를 侍奉하는 內人이나 생존했던 사람은 아니다.” 김용숙, 『이조여류문학 및 궁중풍속의 연구』, (숙대 출판부, 1970), 146면.
- 다) 西人쪽의 한 사람 - 박오순, <인현왕후전> 연구-특히 미발표 이본을 중심으로 하여-, 『송전어문학』 1집, (송전대 국어국문학과, 1972), 106면.
- 라) 이본(필사본, 구활자본)의 종류에 따라, 필사본 중 유구상본 계통은 궁중과 관련 있는 인물로, 국립본 계통은 민씨 일문에서 파생한 것으로, 연대62장본 계통은 다른 이본에 비해 變改가 심하여 본격적인 소설에 가까운 것으로 봄 - 김신연, 인현왕후전 연구, (숙대 박사학위 논문, 1994), 8-48면 참조. 등이 있으나, 필자는 좋고, <仁顯王后傳>考-작품의 구조 및 성격을 중심으로- 『원우론총』 제2집, (숙대 대학원 원우회, 1984), 12면.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술자가 '사대부 출신의 남성'이라고 본다.

폐출했을 때나 인현왕후 폐출의 부당함을 증간하던 충신들도 귀양을 보내고 극형에 처했을 때는 숙종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인현왕후전>의 서술자가 숙종이 폐출된 왕이 아니었는데도 것처럼 왕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밝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미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칭송되어야만 하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현왕후전>의 서술자는 <계축일기>에서처럼 왕을 극단적으로 卑俗化하거나 戲謔化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왕 자체를 객관화된 존재로 보고 왕의 부당한 처사와 행위를 비판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한중록>은 궁중문학 작품 중 유일하게 작자가 밝혀져 있다.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영조의 며느리이고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는 네 번에 걸쳐서 자신과 그 주변의 인물들을 역사적인 사건들과 결부시켜 자신의 심회를 드러내는 글을 썼다.

이 <한중록>은 다른 궁중문학 작품들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다. 피해자인 남편 사도세자를 옹호하면 당시 왕이었던 시아버지 영조에게로 화살이 돌아가고, 시아버지인 영조를 두둔하자니 남편을 몹쓸 사람으로 몰아야 하는 이중의 곤혹스러움이 있다. 이러한 곤혹스러움을 바탕으로 깔고 혜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절대권자인 왕의 처사를 간접적으로나마 비판할 뿐 아니라 사도세자의 비행도 드러내어 궁중 절대권자들의 행위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궁중의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온 왕이나 세자의 행위를 세자빈의 입장에서, 왕의 며느리로서, 왕의 어머니로서 비판한 사실은 내인들이나 사대부들이 왕을 비판한 것하고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혜경궁 홍씨가 지존의 몸으로서 존귀한 존재인 왕이나 세자 등을 원망하거나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싹트기 시작한 당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중록>은 당시 여성들에게 중시되었던 여성의 덕을 강조하는 수신서가 아니다.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몰락해버린 친정의 爨白을 주장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왕이나 세자의 비상식적인 행위까지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⁹⁾

9) 이금희, '한중록에 나타난 혜경궁 홍씨의 태도-정조 즉위 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95,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1997) 참조.

임진왜란 이후 나라의 질서가 흐트러진 것을 종(신하)의 탓이나 주인(왕) 탓으로 돌리는 <고공가>나 <고공답주인가>, '수성궁' 주인(안평대군)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운영전> 등은 더 이상 왕이 절대적이고도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예고해 준 것이었다. 따라서 <계축일기>, <인현왕후전>, <한중록> 등 궁중문학 작품이 조선조 후기에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싹트기 시작한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 시기로부터 왕은 더 이상 칭송이나 찬탄의 대상이 아니라 객관화된 존재로 원망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자, 한글은 예상외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특히 궁중과 관련된 여성들 사이에서 한글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주요한 수단이 되었음은 여러 기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6년만인 단종 1년에 궁궐의 시녀가 언문으로 쓴 戀帖을 주고 받으며 별감과 간통을 했다든지, 성종 13년 제안대군의 부인 박씨가 종들과 언문으로 쓴 戀書를 주고 받으며 사통한 사건¹⁰⁾들은 당시 궁궐과 관련된 여성들이 한글로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 곧 별감이나 하층의 종 등도 한글로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보아 한글은 예상보다 빠르게 궁궐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그 주변인들이 널리 사용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조선 중기에 이르면 궁중과 관련된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글로 기록한 것들이 눈에 띈다. 순천 김씨(1548년 이전-?)의 묘에서 출토된 언간이라든가 17세기 중엽 남평 조씨(1574-1645)가 쓴 《丙子日記》 등은 그 좋은 예가 된다. 또한 17세기 중후반 지식층 여성들은 국문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들 나름의 소설문화를 형성¹¹⁾하여 여성들

이금희, '<한중록>과 혜경궁 홍씨의 삶 - 其一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논문집』 19집, (상지대학교, 1998) 참조.

10) 정출현,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9), 181면. 정창권,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 -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2), 26면에서 재인용.

11) '여성과 한글', '여성과 조선후기 소설문화'에 대해서는 정창권,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 -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12), II. 여성과 소설, 11-54면, 참조.

과 한글과의 긴밀한 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孝宗妃인 仁宣王后 張氏(1618-1674)가 淑明公主에게 보낸 편지 속에 <綠衣人傳>, <河北李將軍傳>, <水滸傳>과 같은 소설들이 들어 있는 점과 서포와 조성기의 어머니가 소설을 즐겼다는 사실은¹²⁾ 여성과 문학, 여성과 한글과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주고 있다.¹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조 후기에 궁중문학이 출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임진왜란 이후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없는 시대상황 속에서 그 동안 신성시되고 칭송되어졌던 왕이 그 절대성을 상실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 궁중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사대부가의 여성이나 일반(기생 포함) 여성들¹⁴⁾이 한글을 애호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궁중에 얽힌 여러 일들을 한글로 기술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3. 궁중문학 작품의 공통점 - 정통성 문제와 갈등

<계축일기>, <인현왕후전>, <한중록>은 역사적인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 세 작품이 각각 역사적인 사실을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기술하거나 형상화했는지는 각 작품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계축일기>, <인현왕후전>, <한중록>에는 역사와 문학이 공존해 있어서 이 양자를 분명하게 구분 짓는 일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역사의 이야기와 문학에서 말하는 소설의 이야기는 양자가 모두 설화의 두 극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차하순

12) 이금희, 17세기 소설의 연구 -배경 및 양면구조를 중심으로 -, 『고소설 연구』, 제1집, (한국 고소설학회, 1995, 12), 308-313면.

13) 본 논문에서는 '여성과 문학'에 관한 것이 주된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과 문학', '여성과 한글문화'와의 관계는 정창권의 앞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14) 송덕봉(1521-1578 ; 유희춘의 부인), 이매창(1573-1610 ; 부안의 기생), 笑春風(성종 때의 기생), 황진이(중종 때의 기생), 조태억의 어머니 남원 윤씨(1647-1698), 김만중의 어머니 해평 윤씨(1617-1689), 조성기의 어머니 청송 심씨 등.

은 역사의 이야기와 소설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이야기(story), 설화(narrative), 소설(novel, fiction)은 다같이 설화문학(narrative literature)의 한 형식이라 보겠으며 이 3자의 구별은 사실상 어렵다.....역사의 이야기와 소설의 이야기는 다른 점은 없는가? 소설은 <허구적>(fictional)이며 <상상적>(imaginative)이지만 역사는 <사실적>(factual)이다. 허구적 설화(fictional narrative)와 사실적 내지 역사적 설화(historical narrative)의 관계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오랜 논의의 대상이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이 양자가 설화의 두 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역사적 설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화의 구조와 세부는 과거현실(past actuality)의 재현이며 역사가(저자)와 독자간에는 그 재현의 진실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허구적 설화(예컨대 소설)의 경우에는 그런 주장이 각별히 문제삼을 것이 못된다.¹⁵⁾

차하순이 밝힌 바대로 역사와 소설을 구분할 때, 과거현실의 재현에 중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허구적 이야기에 비중을 둔 것인지를 따져서 그 비중의 정도에 따라 작품의 성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궁중의 비사를 다룬 <계축일기>, <인현왕후전>, <한중록>에는 허구적 이야기보다 역사적 현실을 재현하여 그 진실을 전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풍기고 있기 때문에 허구로 이루어지는 소설보다 역사성을 중시하는 실기문학적 성격¹⁶⁾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다.¹⁷⁾

15) 차하순 외, 『역사와 문학』,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81), 45-46면.

16) 김용숙은 實記文學의 성격을 ‘한 마디로 사실의 기록에서 출발한 문학이고, 실기문학의 대표작품으로 <開中錄>, <癸丑日記>, <仁顯王后傳>을 들었으며, 이들 작품들은 모두 궁중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그 사건 자체의 진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록했다.’고 했다. 實記文學에 대해서는, 김용숙의 ‘왕조 사회와 實記文學’, 황폐강 외편,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398면 참조.

이 이외에도 <한중록>을 실기문학으로 심도 있게 고찰한 정은임의 ‘<한중록>에 나타난 실기문학적 성격 1-5’, 『강남대 논문집』 26집, 『인문과학논집』 2집, 『강남대 논문집』 29집, 『강남대 논문집』 32집, 『강남대 논문집』 34집, (강남대학교 출판부, 1995, 1996, 1997, 1998, 1999) 참조.

17) 본고에서는 <계축일기>의 장르문제 - 곧 <계축일기>가 허구성(虛構性)이 승한 소설 혹은 역사성이 승한 실기문학(수기 포함) -가 주된 논의가 아니므로, 이 문제는 김용숙의 『개정 증보판 조선조 여류문학연구』, (해진서관, 1990), 286-386면. 정은임의 『궁정문학 연구』, 솔터, 1993, 137-158면. 김신연의 ‘<서궁일기>연구

또한 구중궁궐 속의 비사를 다룬 세 작품은 모두 절대권력과 죽음을 다루고 있다. 죽음도 자연사가 아니라 궁궐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할 가족들이 음모에 휘말려 권력에 희생된다. 절대권력자가 자신의 절대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형이나 동생을 죽이고, 사랑하는 아내를 내쫓거나 죽이며 심지어 외동아들을 참혹하게 죽인다.

그런데 궁중 안의 절대권력과 죽음, 절대권력과 비극의 근거에는 정통성 문제가 깊게 자리잡고 있다. 정통성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왕의 아들, 곧 왕의 뒤를 이어갈 왕자의 문제인데, 왕자가 정비 소생이라면 비극의 가능성이 적으나 후궁 소생인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궁중 비극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는 것을 궁중문학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계축일기>는 광해군 5년(계축년)부터 광해군 15년(계해년), 곧 인조반정 때까지의 일을 내인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내용을 보면 선조 말경,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가 임신한 때(선조 35년 임인년)로부터 시작하여 인조반정 후 서궁문이 열릴 때까지의 일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거나 허구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기술했다. <계축일기>에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허구성이 혼효되어 오늘날까지도 장문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계축일기>에서 역사적 사실을 제외해버리면 작품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계축일기>의 첫머리부터 선조 이후의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출생여부로 긴장감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근거에는 적서차별이라는 정통성 문제가 다른 무엇보다 큰 비중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서차별이 일반 가정에서도 엄격했던 시대에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 궁중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민감한 사안이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선조는 초비인懿仁王后 박씨에게서는 후사를 얻지 못했고 여러 후궁들에게서 13명의 왕자(君)와 10명의 옹주를 두었다. 선조의 계비인 仁穆王后 김씨는 19세에 당시 51세인 선조와 결혼하여 1명의 공주(정명공주)와 1명의 왕자(영창대군)를 낳았다.¹⁸⁾

-작자 추정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5). 민영대의 『계축일기 연구』, (한남대 출판부, 1990). 정병설의 '계축일기의 작가문제와 역사소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15집, (한국고전문학회, 1999, 6) 등의 논문으로 미룬다.

<계축일기>의 서두에 인목왕후의 출산을 놓고 팽팽하게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은 혹여 인목왕후가 아들을 순산하여 적서문제가 조정에서 논의될까 염려해서이다.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급히 세자 책봉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후궁 소생인 여러 왕자들 중에서 임시로 17세였던 광해군(공빈 김씨 소생, 왕자 중 2남)을 세자로 책봉했다. 그러나 선조 35년(1602, 萬曆 壬寅年)에 선조의 계비인 인목왕후가 임신을 하자 광해군 측에서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당시 광해군이 세자라고 해도 명나라로부터 정식으로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세자의 자리가 확고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더욱이 선조 34년에 예조에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세자 책봉을 청하자고 했을 때, 선조는 세자 책봉보다 계비 책봉이 급함을 언급하여 광해군의 마음을 불안케 했다. 계비 책봉 후에는 광해군을 전보다 소원하게 대하여 조정에서는 선조의 의중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때에 정비 소생이 대군이라면 적서를 중시하는 조선조에서 한 번쯤 적서논의가 있을 법하기 때문에 광해군 측에서는 인목왕후의 임신과 출산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입오년 임신으로는 정명공주가 태어났고, 선조 39년(1606, 丙午)에는 영창대군이 태어났다. 정비 소생인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선조는 세자인 광해군을 점차 멀리하고 어린 영창대군에게 사랑을 쏟았다. 『연려실기술』 권 18을 보면, 선조는 전교하기를 “매일 아침 <세자>가 문안할 때에는 <내가> 반드시 노엽게 되니 지금부터는 문안을 우선 정지하고 3일 간격으로 하여라”¹⁸⁾했다. 이로부터 세자가 문안할 때마다 “어찌 세자의 문안이라 이르느냐. 너는 권봉(權封 임시로 봉한 것)한 것이니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라”²⁰⁾고 명하여 광해군에 대한 사랑이 변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할 때만 해도, 선조는 장자인 임해군은 성격이 광포하여 인심이 따르지 않은 이유를 들었고, 광해군은 인망을 좇아 책봉한다고 했다. 그러나 왜란으로부터 나라가 안정되고 정비 소생이 태어나자 선조는 광

18) 진단학회, 『한국사 연표』, (을유문화사, 1959), 361-362면.

19)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 연려실기술 IV』, 고전국역총서 4,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67), 434면.

20) 『국역 연려실기술 IV』, 440면.

해군을 점차 멀리 하게 되어 후궁 소생인 광해군을 지지하는 大北 세력과 갈등의 골이 깊어 갔다. 특히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당시 영의정이었던 小北의 유영경은 백관을 인솔하고 하례했다.²¹⁾ 영의정인 유영경이 세자인 광해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관을 거느리고 하례한 일은 당시 광해군을 옹위하고 있던 정인홍, 이이첨 등의 大北세력에게 위기감을 조성시켰다. 그리하여 大北세력들은 小北의 유영경 등을 겨냥하여 “적자(영창대군)가 났으니 봉세자 주청을 아니 한다.”²²⁾고 몰아부친 후 선조의 병환이 점점 깊어가자 정인홍 이이첨 등이 “유영경이 임해군을 위하여 광해군 봉세자 주청을 아니 하오니 수상 유영경의 머리를 주소서.”²³⁾하고 상소했다. 깊은 병환 중에 정인홍 등의 상소를 본 선조는 “제 어찌 군부(君父)를 협박하리.”²⁴⁾하고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침식을 전패하고 “인홍 등을 정배하라.”²⁵⁾고 명하기는 했으나, 그들이 유배를 떠나기도 전에 선조가 승하한다.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小北의 투쟁은 실패로 끝나고 大北이 전권을 장악했다.

大北이 전권을 장악한 후,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통성 문제를 야기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해 나간다. 먼저 명나라에서 장자(임해군)를 두고 차자(광해군)를 세웠다는 일로 문제를 삼자 모반죄로 강화도 교동에 위리 안치된 임해군에게 “전신불수(全身不遂)한 체 하여야 처자(妻子)와 한대 두고 이른대로 아난즉 죽이리라. 하고 공빈 사촌오라비 김례직을 보내어 은근히 달래니 곧이 듣고 이른대로 한대 당장이 돌아간 후 즉시 심복(心腹)의 의원(醫員)을 보내어 치독(置毒)하여 죽”²⁶⁾이다. 선조의 후궁 중 恭嬪 소생으로는 임해군과 광해군뿐이어서 다른 형제와는 달리 임해군은 광해군에게 하나뿐인 친형이지만, 광해군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죽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실록이나 야사의 기록을 근거로 김용숙은 임해군을 죽인 것이 광해군이 아니라고 보았으니, 다음과 같다.

21) 『국역 연려실기술 IV』, 432면.

22) <계축일기> 10면.

23) <계축일기> 10면.

24) <계축일기> 11면.

25) <계축일기> 11면.

26) <계축일기> 27면.

임해군이 「異志를 품었다」는 혐의를 받고 쫓겨나 죽기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우여곡절을 실록에서 찾아보면 임해군을 죽인 것이 광해는 아니다.....계축일기에서는 명나라에서 장자를 비켜 놓고 立次子한 사실을 조사 하러온 嚴一魁가 다녀간 후 「즉시 심복의 의원을 보내어 치득하야 죽이니 라」 했으나 앞서 실록과 야사의 기록과는 거리가 멀다.

임해군의 죽음이 명나라 사신 엄일피가 다녀간 직후였음은 사실인 바, 더불어 그 이면에는 어떤 약점이 있었던 것만은 다음 인용(광해군 일기 v. 5. 10b-11a 즉위년, 필자)을 보면 알 수 있다.....그런데 계축일기의 서술이 재관성을 띄우지 못했음은 위 인용(<계축일기> 27면, 필자)에서 보는 바와 같다.....위 여러 인용을 보아 광해군 자신의 본의는 아니었다는 것만을 밝히고 싶다. 물론 왕으로서 궁극의 책임은 면치 못하지만 임해군 사건뿐 아니라 그밖에 사소한 大妃의 능행일만 하더라도 고사를 뒤지고 법을 따지는 여러 신하들의 반대 論駁에 결국 왕이 꺾이고 마는 사실을 볼 때, 군주정치라 하더라도 왕에게는 조그만치의 자유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영의정 李元翼까지 합세하여 「죄주라」는 논의에 끝끝내 맞서지 못한 무력과 탐黯의 책임은 면치 못한다 하더라도 계축일기의 주장같이 그가 친형의 존재를 꺼려서 죽인 것이 아님은 사실이다.²⁷⁾

김용숙이 실록이나 야사의 기록을 근거로 광해군이 친형 임해군의 존재를 꺼려서 죽인 것이 아니라고 강변한 것은 인간적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나, 왕이라는 존재는 사사로운 필부가 아니라 한 나라를 책임지는 최고의 절대권력자이다. 비록 광해군이 인간적으로 임해군을 죽이고 싶지 않더라도 권력의 속성상 정통성을 확립해야 하는 절대권 수호자들은 그 정통성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을 후환의 빌미로 보고 지속적으로 제거하려고 한다. 광해군도 사사로운 개인 감정으로는 임해군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고 해도 그는 후궁의 둘째 아들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장자인 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명나라에서 엄일피 등 조사단을 파견하여 임해군을 직접 만난 일 등으로 내심 불안했을 것이다. 따라서 임해군을 죽이는 데에 광해군이 직접 나서거나 부추기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의 죽음을 묵인하여 후환의 소지를 없애려고 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광해군의 무리들이 광해군의 異腹 동생 영창대군을 인목대비의 품에서 빼앗아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고 그곳에서 불의의 변을 당하게 한 것도 정통성

27) 김용숙, 앞의 책, 291-299면.

문제와 관련이 있다. 특히 영창대군은 후궁 소생인 광해군보다 종통의 서열상 우선 순위이므로 광해군으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였다. <계축일기>를 보면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시기하고 미워한 것은 영창대군이 출생한 때로부터라고 되어 있다.

계묘년에 공주를 탄생하오시니 분발 가져간 자가 오전(誤傳)하여 대군이 라 듣고 대답지 아니하다가 공주 나시다 듣고 무엇 주더라 하니 더불어 미워함을 알리러라.²⁸⁾

웃전에 문안 가면 대군의 소리 듣기 싫더라.²⁹⁾

내 이신 적은 열 대군이 있으나 두렵지 아니려니와 세자는 대군과 조카 니 단종조에도 조카를 해하고 겠으니 이런 일이 있을까 저허하노라. 내 부디 대군을 없이 하고 세자를 편히 살게 하겠노라.³⁰⁾

이렇듯 광해군은 대군의 존재를, 영창대군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안위까지도 결부시켜 꺼리게 되었다. 나이 어린 영창대군도 광해군이 자기의 존재를 싫어하고 꺼림을 눈치채고 “대전 형님이 누님이란 어여뻐하고 나는 본체도 아니하시니 나도 누님이나 될 것을 무슨 일 사나이 되듯던고.”³¹⁾하고 탄식한 것으로 보아도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얼마나 꺼리었는지를 알 수 있다.

광해군이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제거하고도 정통성 문제를 놓고 고심한 흔적은 광해군 7년(1615년)에 생모 공빈 김씨를 恭聖王后로 추존해 孝敬殿에 봉안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왕비가 아닌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후궁을 왕후로 추존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어서 반대가 많았으나 광해군이 기어이 강행³²⁾한 것도 정통성 때문이다. 임해군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일 뜻이 없었다고 본 김용숙은 “실록을 보면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죽일 의사까지는 꿈에도 없었던 것 같다. 다만 그 불안의식(광해군이 후궁 소생이라는 열등의식 : 필자)에 편승하여 정권다툼에 혈안이 된 당

28) <계축일기> 9면.

29) <계축일기> 34면.

30) <계축일기> 35면.

31) <계축일기> 34면.

32)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1』 (동방미디어, 2000, 3.), 154면.

파인들이 꾸며낸 무서운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³³⁾고 하여 <계축일기>의 편파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통성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광해군으로서는 영창대군의 죽음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4. 결 론

이상에서 살핀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조 후기에 궁중문학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임진왜란 이후의 시대상황이 왕을 절대적인 존재에서 상대적인 존재로 보게 되는 의식의 변화요, 다른 하나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국민들의 한글 사용이 생각보다 빠르고 깊숙하게 보급된 점이다.

조선조 전기의 작품 <강호사사기>나 <면앙정가>에는 왕이 칭송의 대상이어서 모든 것을 ‘亦君恩이샀다’로 돌리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왕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임진왜란 직후에 나온 작품 <고공가>나 <고공답주인가>에는 왕이라는 존재가 그 절대성을 상실하고 객관화된 대상으로 바뀌었다. 주인(왕)이 고공(신하)에게 몸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고공들이 사심 없이 일해줄 것을 당부하고, 고공(신하)이 주인(왕)에게 고공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주인의 잘못도 서슴없이 지적한다.

임진왜란 이후에 나온 작품 <운영전>에는 수성공의 주인 안평대군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 <운영전>에서 수성공의 공녀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비극적으로 끝냄으로써 왕족(안평대군)의 반인륜적인 처사를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은, 이미 궁의 주인이 더 이상 신성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비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계축일기>, <인현왕후전>, <한중록> 등 궁중문학 작품이 조선조 후기에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임진왜란 이후부터 싹트기 시작한 국민들의

33) 김용숙, 앞의 책, 200면.

의식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 시기로부터 왕은 더 이상 칭송이나 찬탄의 대상이 아니라 객관화된 존재로 원망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한글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파된 일은, 한글로 쓴 궁중문학 작품을 출현하게 한 바탕이 되었다. 특히 궁중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훈민정음이 창제되자마자 궁중에서 사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한글을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궁중에서의 한글 교육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조선 중기에는 일반 여성들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글로 기록했고, 17세기의 지식층 여성들 또한 국문 장편소설들을 중심으로 여성들 나름의 소설문화를 형성하여 여성들과 한글과의 긴밀한 관계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처럼 조선조 후기에 궁중문학이 출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 궁중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대부가의 여성, 혹은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애호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궁중에 얽힌 여러 일들이 한글로 기술되어질 수 있는 터전이 충분히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3) 구중궁궐 속의 비사를 다룬 <계축일기>, <인현왕후전>, <한중록>은 모두 절대권력과 죽음을 다루고 있다. 죽음도 자연사가 아니라 궁궐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절대권력에 의해 희생된 죽음이다. 절대권력자가 자신의 절대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형이나 동생을 죽이고, 사랑하는 아내를 내쫓거나 죽이며 심지어 외동아들을 참혹하게 죽인다.

그런데 궁중 안의 절대권력과 죽음, 절대권력과 비극의 근거에는 정통성 문제가 깊게 자리잡고 있다. 정통성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왕의 아들, 곧 왕의 뒤를 이어갈 왕자의 문제인데, 왕자가 정비 소생이라면 비극의 가능성이 적으나 후궁 소생인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비극의 실마리가 되었다.

따라서 <계축일기>, <인현왕후전>, <한중록>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정통성 문제'에서 파생된 갈등을 형상화했다. 광해군이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격하시켜 서궁에 유폐시킨 것은 광해군의 정통성 문제와 직결된다. 그리고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생모 공빈 김씨를 恭聖王后로 추존하여 孝敬殿에 봉안한 일도 광해군이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도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출하거나 장희빈을 사사한 일, 영조가 사도세자를 제거한 일 등³⁴⁾도 정통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34) <인현왕후전>, <한중록>에 대한 '정통성 문제'는 지면 관계상 後稿를 기약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Royal Court Literature (1)
*-the Arrival Background of the Royal Court Literature
and common things among works-*

Lee Keum-Hee

There are two factors in background which the royal court literature was born in late epoch of the Chosun.

One is the change of consciousness. The manner which people thought of their king was changed after Imjinwoaran. Before the war, they treated a king as the absolute being, but after then they began to think of him as the relative being.

The reason some royal court literatures like <Keachukilgi>, <Inhyunwanghogeon>, <Hanjungruk>, etc., could be born is not unrelated to the change of consciousness of people. Moreover, the king was treated not only as a target of admiration but a target of criticism.

The other is that the speed of spreading Korean, Hangeul, is far faster than expectancy. Especially people who had lived in the palace used Korean, Hangeul, as a main way to communicate in private as soon as created. It reveal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f Hangeul in the palace directly.

All of the <Keachukilgi>, <Inhyunwanghugeon>, <Hanjungrok> which are telling the unknown episodes treat the absolute power and deaths. Now there are serious orthodox problems concerned with the absolute power, deaths and tragedy in the palace. The biggest thing of the problems is related to an heir, the son of the king. It is much more complicated and

tragic when the heir was a child by a concubine.

Accordingly the common thing among <Keachykilgi>, <Inhyunwanghugeon>, <Hanjungrok> is the derived discord from the orthodox problems in a word.